

월랜드 ‘긱’...터너·해즐베이커 ‘글쎄’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선수들 1차 점검 마무리
월랜드 한화 상대 6이닝 3실점 KIA 첫 승리투수
해즐베이커 18타수 4안타, 터너 5이닝 8실점 호된 신고식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선수들의 1차 점검이 끝났다. 성과보다는 속도가 더 많은 시작이다.

KIA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세 명을 모두 교체했다.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바뀌면서 KIA의 올 시즌 예상도 복잡해졌다.

지난 27일 조 월랜드가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첫 선발 등판을 하면서 KIA '신입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정식 무대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결과로는 월랜드만 '맑음'이다. 팀 3연패 상황에서 등판했던 월랜드는 6이닝 7피안타(1피홈런) 4볼넷 3탈삼진 3실점(2자책점)의 투구로 팀의 연패를 끊고 2019시즌 KIA의 첫 승리투수가 됐다.

4회 이후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출산 휴가'로 인한 실전 공백 우려를 지우고 적극적인 피칭으로 첫 승의 영예를 안았다.

월랜드는 "시즌은 길다. 144경기를 한다. 연패도 할 수 있는 만큼 등판 상황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며 "모든 게 좋았다. 초반에는 정말 좋은 공을 던졌다"고 자평했다.

기본 중계 승리투수가 된 월랜드는 긴 이닝을 풀 어갈 순간 대처와 노련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월랜드는 "4회 넘어가면서 상대 변화에 맞게 빨리 대처를 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며 "다음 등판에서는 중간에 흔들림 없이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이콥 터너와 해즐베이커의 초반 성적은 '흐림'이다.

해즐베이커는 KIA의 시즌 1호 홈런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쉽게 헛도는 방망이가 고민이다.

그는 월랜드가 선발로 나왔던 지난 27일 1회말 무사 2루에서 한화 선발 김성훈의 140km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 넘기는 투런포를 만들었다. 해즐베이커의 KBO리그 첫 홈런이자 팀의 시즌 첫 홈런이었다.

해즐베이커는 첫 타석을 호쾌한 홈런으로 열며 '부진 탈출'을 알리는 것 같았지만 이후 4타석은 모두 삼진이였다.

그는 27일까지 4경기에서 9개의 삼진으로 기록한 반면 볼넷을 하나도 골라내지 못했다. 타율은 18타수 4안타, 0.222.

결국 김기태 감독은 28일 경기에서 처음 라인업에 변화를 줬다. 2번 역할을 맡았던 해즐베이커와 7번으로 나섰던 나지완의 자리를 교체하며 '출루'에 무게를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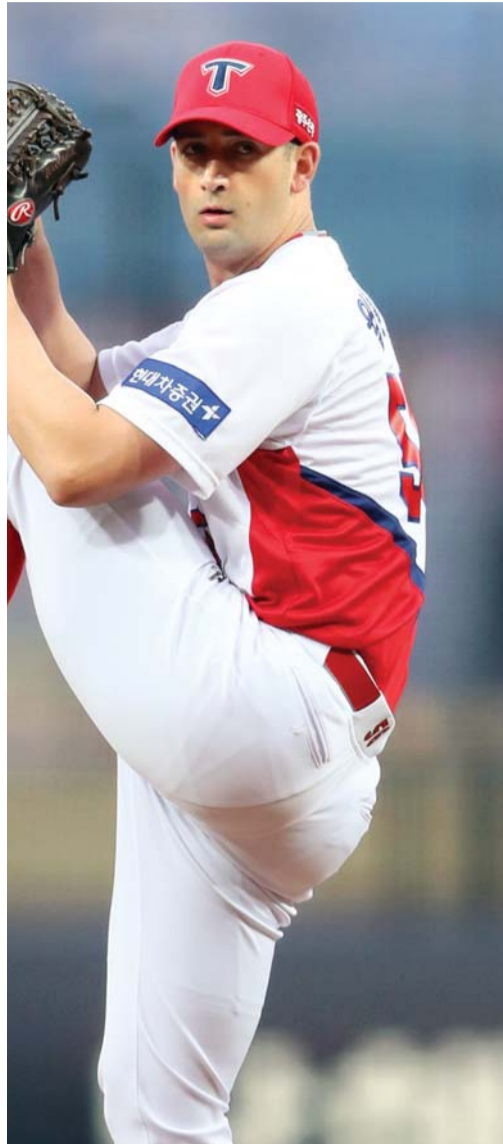
지난 24일 제이콥 터너도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터너는 1회부터 4안타로 3실점을 하면서 흔들렸다. 2회에는 오지환과 조셉에게 연달아 홈런도 맞는 등 첫 등판 성적은 5이닝 10피안타(2피홈런) 2볼넷 1탈삼진 8실점(7자책)이 됐다.

앞선 두 차례의 시범경기의 견고함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첫 등판에 패전이 투수가 된 터너.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해즐베이커와 터너 모두 한국 생활에는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 KIA에서 먼저 선수 생활을 경험한 앤서니 코치가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육성'도 이들의 반등을 위한 동력이다.

해즐베이커는 시범경기에서부터 매일 투타를 자처하면서 방망이를 조율하고 있다. 터너도 '공부하는 투수'다.



월랜드



터너



해즐베이커

터너와 호흡을 맞췄던 포수 한승택은 "등판을 앞두고 LG 타자들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다. 직접 공부한 내용을 적어서 가지고 왔다. 상대 타자들의 약점도 적어왔고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며 "상대 약점도 있지만 그날그날 타격 컨디션

에도 맞춰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에 힘도 있고, 투심도 좋다. 볼끝이 날카로운 면이 있는데 첫 등판 날에는 실투가 있었다"며 "또 아무래도 나도 터너와 시범경기에서 한번

밖에 호흡을 맞추지 못해서 대처가 늦었다.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페넌도 바꾸고 변화를 줘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나도 부족했다.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보여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김종국 코치, 기합 지르며 던지는 하준영 보며 "이소룡인 줄 알았다"

▲이소룡인 줄 알았다 = 코치진을 웃게 하는 하준영이다. 고졸 2년 차 좌완 하준영은 눈부신 성장세 속에 팀의 필승주 시즌을 출발했다. 개막전에서 첫 등판에 나서 1.1이닝 1피안타 3탈삼진 1무실점을 기록했던 하준영은 27일 두 번째 등판에서도 탈삼진 2개를 뽑아내는 등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힘 붙은 직구에 움직임 좋은 체인지업으로 상대를 돌려세우면서 코치들을 미소짓게 한 하준영. 김종국 코치는 하준영의 파이팅 넘치는 투구에 웃음이 터졌다. 28일 훈련 시간에 김 코치

는 하준영을 보고 "기합을 지르면서 던지더라. 이소룡인 줄 알았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김 코치는 "슬라이더나 다른 구종은 타자들이 볼 때 봉 떠서 오는 느낌이 있는데, 체인지업은 직구처럼 오다가 가라앉으니까 까다롭다"면서 하준영의 피칭에 대해 설명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사람들의 이목을 끈 김기훈의 선발 준비였다. 고졸 루키 김기훈은 28일 첫 선발 등판을 했다. 지난 24일 프로 무대 적응 차원에서 불펜 투수로 나왔던 그는 예정대로 28일에는

선발로 이름을 올렸다. 흔히 선발들은 느긋하게 출근해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등판 준비를 하는 게 일상적이다. 하지만 프로에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된 김기훈은 다른 투수들과 함께 훈련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장을 돌아다니면서 출근 인사를 한 김기훈은 김기태 감독과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원래 맞는 게 일이나까 자신있게 던지라"는 주문을 받은 김기훈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다. 김기훈은 아예 자리를 옮겨 배팅훈련에 나선 선발들을 위해 공을 올려줬

다. 김기훈은 "잘 부탁드립니다"며 4번 타자 최형우, '타점 머신'이 된 김민식 등 선배님들의 티배팅을 도왔다. 김기훈은 "원래 고등학교 때도 선발날에 안에 있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움직였다"고 말했다. KIA 코칭진의 배려이기도 했다. 코치진은 어린 선수가 혼자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등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2019시즌 첫 안타 써줄까? = 개막 4경기 만에 김선빈의 안타가 터졌다. 김선빈은 올 시즌 팀의

리드오프 역할을 맡아서 가장 먼저 타석에 서고 있다.

시범경기에서 0.412의 타율을 기록하며 좋은 감을 보여줬지만 개막 후 세 경기에서 김선빈은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다. 27일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냈던 김선빈은 2회 두 번째 타석에서 3루수 내야 안타로 시즌 첫 안타를 기록했다. 28일 최재진과 자리에서 타순을 언급한 김기태 감독은 "공 가져오라고 해서 2019 첫 안타 써줄까 물어봤다"며 전날 김선빈의 첫 안타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보였다. 이어 김 감독은 "그 전에 잘 맞은 타구가 잡히기도 했다"며 김선빈의 상승세를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18년만에 MLB 개막전 한국인 선발승 챙길까

거침없는 광주 FC, 5경기 연속 무패 이어간다

오늘 다저스타디움서 애리조나와 홈경기 등판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한국 팬들이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경기를 보며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미국 본토 개막전이 열리는 29일부터 선물을 준비한다. 류현진은 29일 오전 5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개막전 선발로 낙점되면서 류현진은 한

국인 빅리거 역사에 새 페이지를 열었다. 류현진은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선발 등판하는 한국인 투수다. 그는 더 나아가, 18년 만에 메이저리그 개막전 한국인 선발승에 도전한다. 박찬호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2001년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밀워키 브루어스전)로 등판해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챙겼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적 첫해인 2002년에 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개막전에 선

발 등판해 5이닝 9피안타 6실점으로 부진해 패전의 멍에를 썼다. 2001년에 멈춰 있는 한국인 빅리거 개막전 선발승 승리 시계를 류현진이 다시 돌릴 수 있다. KBO리그에서 류현진은 5차례 개막전 선발로 나섰다. 성적은 좋지 않았다. 2009년 SK 와이번스를 상대로만 5.1이닝 4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를 챙겼을 뿐, 개막전 5경기에서 1승 3패 평균자책점 5.81로 부진했다. 하지만 다른 지표는 '승리'를 기대하게 한다. 류현진은 애리조나전에 13차례 등판해 3승 3패 평균자책점 3.77로 준수한 성적을 냈다. 올해는 류현진에게 호재가 있다. 그동안 애리조나를 상대할 때마다 류현진을 괴롭혔던 폴 골드슈미트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이적했고, A.J. 폴록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천적'이 사라진 애리조나는 류현진에게 한결 쉬운 상대다. 애리조나의 개막전 선발은 '전 다저스 동료'인 잭 그레인키다. 지난날 류현진은 주목받는 경기 때마다 호투하며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으로부터 '빅게임 피쳐'라는 찬사를 받았다. 올해는 첫 등장부터 '주목받는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30일 'K리그2' 4라운드 FA컵 승리 전남과 재격돌

2019시즌을 화려하게 연 광주 FC가 5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2 2019 4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이 경기에서 무패행진을 5경기로 늘리겠다는 각오다. 요즘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 바로 광주다. 광주는 개막 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K리그2 1위를 지키고 있고, FA컵에서 승리를 보냈다. 광주는 지난 27일 전남과 벌인 FA컵(3R) 원정경기에서도 1-0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이어갔다. 확실한 로테이션을 통한 승리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광주는 김태운, 정다원, 손민우, 두현석 등 올 시즌 아직 그라운드 오르지 않은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구성했다. 실험성이 강한 라인업이었지만 정다원, 김태운, 여봉훈, 김준형 등은 당장 주전으로 출전해도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다. 또 아술마토프와 윌리안의 기량 점검이라는 목표도 있었다.



FA컵 3라운드 전남과의 경기에서 김준영이 득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결과는 1-0 승리였다. 광주는 전남 6분 터진 김준형의 골을 지키면서 FA컵 다음 무대를 예약했다. 이 경기를 통해 광주는 무패행진을 이었고, 주축 선수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또 앞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경기력을 유지하고 기량까지 점검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었다. 광주는 3일 만에 재개되는 '엘로더비'에서 1위 독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지역 라이벌'인 광주와 전남은 나란히 홈에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는다. 그래서

두 팀의 대결은 '엘로더비'로 통한다. 광주는 '엘로더비' 역대 통산 전적에서 8승 5무 5패로 앞서있다. 경기당 2.7골 이상 터질 정도로 두 팀의 대결은 치열했다. 광주의 한 경기 역대 최다골(6골)도 전남전에서 기록했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도 '골잡이' 펠리페를 앞세워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또 세 경기 연속 골의 주인공 펠리페가 다시 한번 골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을지에도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